

예수 성심 성월

선생님만 보세요

「가톨릭 디다케」 2005년 6월호 '재미있는 교리 교안'

6월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예수 성심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예수 성심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온 일생 동안, 심지어는 고통을 받으신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상징으로서 예수의 육체적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며, 인간에 대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요한 19, 34)는 죄로 죽은 인간을 깨끗이 씻고 새 생명을 주는 세례의 물과 새로 태어난 백성을 먹여 기르는 성체성사를 상징합니다. 예수 성심의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표현인 성체성사는 당신 자녀들을 영적으로 배불리어 영원히 살리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 있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축일을 기념하고 성시간과 기도회 등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하며 성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들의 신심 행사가 교회의 법규와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면 특히 교황청의 명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이를 크게 장려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1969

년 전례 개혁에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최고 등급의 축일로 정했으며 교황 바오로 6세는 예수 성심 축일 제정 200주년을 맞이하여 반포한 교서에서 예수 성심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초점을 두는 가장 탁월한 신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시간

성시간은 예수 성심 공경의 가장 대표적인 신심 행위로 인류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 성심께 속죄와 희생,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1674년 6월 발현에서 예수님께서 마르가리타 마리아 성녀에게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성심을 보이시며 보속의 방법으로 자주 영성체(특히 매달 첫 금요일에)하고 성시간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첫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내가 겪은 극심한 고민과 슬픔에 너를 참여시키겠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나 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서 성부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속하며 성시간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시간의 유래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은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

예수 성심은 오늘날처럼 생명 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 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속과 희생의 실천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동시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예수 성심)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가톨릭대사전'을 참고하였습니다.

교리 도움 자료(초등부 저학년)

『가톨릭 디다케』 2005년 6월호 '재미있는 교리 교안'

예수님의 마음

• 준비 사항

우리들의 마음 카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책

※ 그림 자료는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 방법

① 우리들의 마음

- 그림 카드(웃음, 슬픔, 찡그림, 화남)를 보여 주면서 각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표정에 대해 질문하고 유아들이 각각의 그림에 나타난 감정과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지도한다.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 있게 이끈다.

-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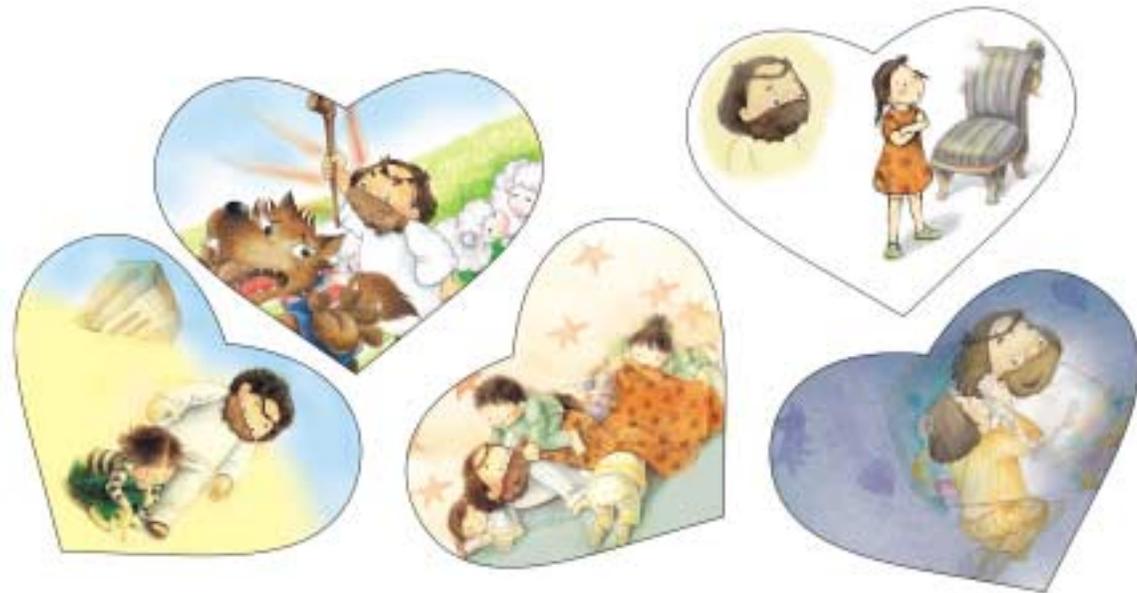
②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책

-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을 유아들에게 보여 주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책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피하시는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마음과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시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다.

-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마음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해 준다.

-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교리 도움 자료(초등부 저학년)

『가톨릭 디다케』 2005년 6월호 '재미있는 교리 교안'

우리의 사랑을 드러요!

• 준비 사항

예수님 그림, 하트 조각 퍼즐, 색연필

※ 제시된 작업 사진은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 방법

- ① 교사는 색지를 이용해 커다란 하트를 만들고 아이들 숫자만큼 조각을 나눈다.
- ② 아이들에게 하트를 하나씩 나눠 주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트 조각에 적게 한다.
- ③ 예수님의 가슴 위에다 하트 퍼즐을 맞추면서 아이들이 적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게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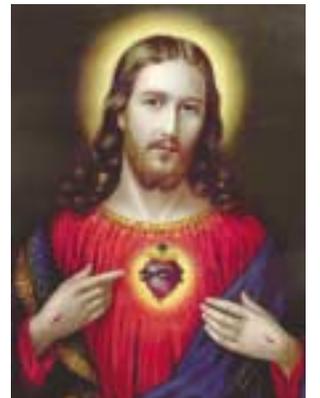
교리 도움 자료(초등부 고학년)

『가톨릭 디다케』 2005년 6월호 '재미있는 교리 교안'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한가득

• 준비 사항

교사는 예수 성심을 표현한 성화를 보여 주며 설명한다. 가시관에 둘러싸인 심장에서 불이 타오르고, 이 사방으로 뻗어가며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사는 가시관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통과 고난을, 물은 죄로 죽은 인간을 깨끗이 씻고 새 생명을 주는 세례성사를, 피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먹여 기르는 성



체성사를 상징한다고 알려 준다. 성체성사는 예수 성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사이며, 예수 성심은 차가워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끌어 주신다(가톨릭대사전 '예수 성심' 참조).

교리 도움 자료(초등부 고학년)

'가톨릭 디다케' 2003년 6월호 '보시니 좋더라'

사랑의 편지

• 준비 사항

빈 상자, 색종이나 메모지, 필기도구

• 진행 방법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고 적어 본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도록 결심한다.

- ① 빈 상자를 예쁘게 포장하고 아이들의 손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만든다.
- ②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게 한다.
- ③ 편지를 모아 빈 상자에 넣고 뒤섞는다.
- ④ 교사가 신호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 주세요." 하며 하나씩 뽑아 낭독한다. 교사는 예수 성심에 관한 내용을 그림이나 짧은 이야기로 만들어 미리 상자에 넣어 둔다.
- ⑤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읽고 난 뒤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교리 도움 자료(중고등부)

'가톨릭 디다케' 1998년 6월호 '특집1'

신문 작업

• 준비 사항

신문 기사, 전지(조별 1장씩), 매직

• 진행 방법

① 조 구성

- 조를 나눈다. 가정, 사회, 정치/경제, 문화 등으로 주제를 나누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시간 단축을 위하여 교사가 각 주제에 맞는 신문 기사를 미리 준비해 둔다. 학생 잡지 등을 이용하여 우정, 이성교제, 유행, 연예인 등을 주제로 다루어도 좋다.

② 조별작업

- 전지에 이등분선을 그리고 왼쪽에 기사를 붙인다. 조원끼리 기사를 읽고 느낌을 나누며 내가 그 사건 속 인물이 되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이야기하고 한 명이 정리하여 전지에 기록한다.

예) 기사/ '실직한 사십 대 가장 자살'

나눔/나는 가족을 남겨 두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힘들어도 진실을 말하고 가족의 도움을 청하겠다.

이해가 간다. 자살은 아니어도 혼자 어디로든 떠날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붕어빵 장사라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빚게 한 사회와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 나눔이 끝나면 교사가 전지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지 의견을 나누고 기사를 재구성해 본다. 문장, 그림 등으로 표현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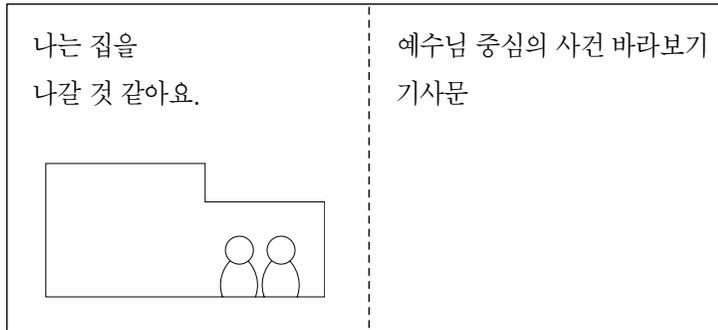
예) 재구성 기사/ '실직한 사십대 가장인 나'

나눔/어려운 이 시간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격려한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다.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시며 이 시련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실 것이다.

〈신문작업〉



〈왼쪽〉

〈오른쪽〉

③ 발표

- 조별로 1명씩 발표한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발표를 생략하고 교리 후 교실 벽면에 전시한다.

④ 정리

- 조원끼리 나눔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나눔 주제를 제시해 주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주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눔 주제/요즘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학원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